

## 자기평가와 자기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김 완 일      김 재 환  
육군사관학교      한양대학교

자기개념과 우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접근에는 기능론과 구조론적 입장이 있다.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첫째,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는 해석과 둘째, 자기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왔다. 아울러 구조론적 입장에서도 첫째, 자기상(self aspect)이 분화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는 주장과 둘째, 자기상이 분화될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한다는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의 한계는 이 입장들이 자기개념과 우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차원간 분화와 차원내 분화”의 두 가지 분화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능론적 접근의 문제점은 분화를 자기개념과 우울의 관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구조론적 접근의 문제점은 분화를 자기개념과 우울을 설명하는데 고려하였지만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분화의 두 가지 차원(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을 분리시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예비연구를 통해 기존의 자기분화(Scott의 자기분화)에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개념을 분리해냈으며, 연구 I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된 시험 상황에서 분화의 두가지 차원이 자기평가와 우울을 증재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지 알아본 결과 차원내 분화는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재하지 않은 반면에 차원간 분화는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 II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많이 느낀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적게 느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 분화에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를 분리해 내서, 자기 개념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입장에서의 상반된 연구 결과를 설명한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울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질적인 자기상을 다양하게 갖도록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정서경험 중의 하나로서 그 정도에 따라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울은 우울감정, 우울증 그리고 우울성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Friedman, 1974). 이중 우울증은 정신분열병과 함께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장애로(Seligman, 1975),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정신장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의 통계치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Robins, Helzer, Weissman, Orvaschel, Gruenberg, Burke 및 Regi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7.5%-9.9%의 미국인이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정균, 박여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옥 및 이영호(1985)의 연구는 5.4%-5.9%의 한국인이 역시 평생동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우울증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Kuiper & Derry, 1982; Tennen & Herzberger, 1987), 그러한 연구경향은 크게 생물학적으로 우울을 설명하려는 입장과 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우울을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중 우울의 기제를 밝히고자한 인지이론에 입각한 연구들(Beck, 1967; Seligman, 1975)은 인간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개념(self-concept)으로 인간이 우울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Brown & Smart, 1989; Goolsby, 1988).

나아가 이들은 두 가지 입장(기능론적 입장과 구조론적 입장)에서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우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능론적 입장은 자기평가나 자기지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이 자신

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이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간이 우울을 느끼게 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자기개념과 우울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전제에 입각한 학자들(Haan, 1977; Jahoda, 1958; Jourard & Landsman, 1980; Vaillant, 1977)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지각 또는 중립적인 지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전제와 연구결과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우울이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두 번째 전제에 입각한 학자들(Alike, 1985; Brown, 1986;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Silverman, 1964)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역시 우울을 적게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하여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어떤 사람이 우울을 적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보다 높은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을 적게 느끼는 사람은 첫째, 자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평가하거나 둘째, 자기의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과장되게 지각하거나 셋째,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울에 대한 기능론적 해석은 자신을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중 어느 쪽이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우울을 적게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해석과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개념에 대한 기능론적인 입장과는 달리 구조론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구조” 또는 “자기도식의 분화와 통합”으로 우울의 원인에 접근하고 있다. 자기분화와 우울과 관련하여 이 입장에는 역시 상반된 두 가지의 주장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자기상(self-aspect)이 분화된 사람(자기상을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주장이다(Charrier & Conway, 1984; Leary, 1957; Linville, 1987; Paulhus & Martin, 1987, 1988; Stryker, 1987; Thoits, 1983; Turner, 1978). Thoits(1983)는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그는 역할정체들이 잘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역할정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체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손상을 받아서 우울을 적게 느끼는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정체들이 잘 구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많은 정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손상을 받아 우울을 많이 느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Thoits의 연구가정을 Linville(1987)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는 “자기복잡성(self-complex-ity)”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자기상들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한가지 자기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다른 자기상들이 완충 역할을 해서 단순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적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론적 입장의 첫 번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견해는 자기상이 분화된 사람이 오히려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주장(cf. Block, 1961; Brockner, 1984, 1988; Donahue, Robins, Roberts, & John, 1993; Higgins, 1983;

Higgins, Klein, & Strauman, 1985, 1986; 김완일, 김재환, 1992)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역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자기를 기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을 많이 느끼며(Block, 1961), 매우 다양한 성격특성 형용사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기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고(Donahue 등, 1993), 자기상(self-aspect)이 분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김완일, 김재환, 1992).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조론적 입장에서의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기능론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에 대한 기능론과 구조론의 두 입장과 함께 이 두 가지 입장을 서로 관련지어 연구한 접근이 있어 왔다(Bem, 1975; Burke & Tully, 1977; Leary, 1957; Linville, 1982; Tetlock, 1989). 이러한 접근은 기능론과 구조론 각각의 개별적인 접근이 갖는 자기개념에 대한 해석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행된 한 연구(Leary, 1957)는 자기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개념이 분화되어 있는 사람임을 밝혀주었다. 아울러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였다(Burke & Tully, 1977; Linville, 1982).

지금까지 자기개념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능론적 입장과 구조론적 입장의 두 가지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각 입장에는 상이한 두 가지의 견해가 역시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제한점에 대한 해답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먼저 Emmons와 King(1989)은 인지체계의 분화도와 감정반응의 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가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연구되어야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Judd와 Lusk(1984)는 신념 복잡성과 태도 극단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에 따라 신념복잡성과 태도 극단성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신념들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상관성이 낮을 때는 신념구조가 복잡할수록 중립화되지만 상관성이 높을 때는 신념구조가 복잡할수록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연구들은 자기분화를 자기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분화와 각 차원들 내의 분화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설명한 자기분화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우울의 경향성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울의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부정적 인지(Beck, 1967; Seligman, 1975), 자기개념(Brown & Smart, 1989; Goolsby, 1988), 자기평가(Alike, 1985; Brown, 1986), 자기분화(Higgins, 1983; Linville, 1987) 및 자기통합(Campbell, 1990; Elliott, 1984) 등으로 설명하였을 뿐 분화의 두 가지 차원(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준거를 가지고 우울성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근거로는 분화의 두 가지 차원인 차원내분화와 차원간 분화는 자기상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의 정도가 한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상이 동질적인 차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상이 이질적인 차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동질적인 다양한 자기

상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가적 효과(additive effect)를 일으켜 감정이 극단적으로 되며 스트레스를 완충해주지 못하므로 우울을 많이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질적인 다양한 자기상이 평균 효과(average effect)를 일으켜 감정이 중립적으로 되며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우울을 적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자기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로 나누어서 우울의 경험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가 자기평가와 우울과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첫째, 기능론적 입장의 기본적 해석의 문제점(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차원간 분화를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해 줄 것이며 둘째, 구조론적 입장이 갖고 있는 해석의 한계(단순히 자기분화와 우울간의 관계만을 고려하였음)를 지적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개념에 대한 두 이론적 입장 각각에서 나타나는 불일치에 대하여 자기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기능론적 입장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원간 분화가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중재할 것으로 가정하여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를 중립적으로 평가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구조론적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분화의 두 가지 차원(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이 자기평가와 우울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평가 수준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

**가설 1-2 :** 차원간 분화가 높거나 낮은 사람은 자기평가수준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중립적으로 평가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평가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I 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I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한 집단에서 분화의 두 차원이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분화의 두 차원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많이 느낄 것이다.

**가설 2-2 :**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적게 느낄 것이다.

**가설 2-3 :**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없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어서, 차원내 분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우울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II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II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연구 I :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 및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본 장에서는 먼저 예비연구를 통해 차원내 분화값과 차원간 분화값을 구하였다. 연구 I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상황에서 중간고사를 사이에 두고 중간고사 전과 후에 각각 기대 성적과 실제 성적을 알아보아 실제 성적과 기대 성적간의 편차를 자기편향 정도로 보았으며, 중간고사 전과 후에 우울 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자기편향 정도와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한 후에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가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중재하는 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 예비 연구 : Scott의 자기분화, 차원내 분화 및 차원간 분화의 관계

본 예비 연구에서는 먼저 사전조사를 통하여 자기분화 척도에서 사용할 성격특성 형용사를 구하여 자기분화 척도를 제작했다. 그런 다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통해 Scott의 자기분화값만을 구했으나 본 예비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작된 척도를 실시해서 요인분석과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통해 Scott의 자기분화값 뿐만 아니라 차원내 분화값과 차원간 분화값을 구하여 이와 같은 3가지 분화값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 중 어느 요인이 Scott의 자기분화와 더 유사한 지와,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는 같은 속성인지 아니면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속성인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피험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정신위생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1-4학년 학생 329명을 피험자로 하였으며 이들 중 1개 이상의 설문지에서 누락된 1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4명(남학

생; 189명, 여학생; 12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도 구

자기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 자기개념의 분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ville(1982, 1985, 1987)이 사용한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성격특성 분류기법에서 사용할 성격특성 형용사를 알아보기 위해 Linville이 그의 연구에서 쓴 방식대로 사전 조사를 통해 14명의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를 모두 기술하도록 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33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33개의 형용사를 자기분화 측정의 성격특성 형용사로 사용하였다.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가지고 Linville이 사용했던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이용하여 Scott의 자기분화값을 측정하였다. Scott의 절차에 따라 먼저 한가지 성격특성의 이름 및 그 옆에는 번호가 쓰여 있는 33개의 카드와 10개의 백지 카드 그리고 16칸으로 된 2장의 기록용지를 주고, 자기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황(예; 친구를 만날 때)이나 자신의 여러 모습들(예; 장점)을 분류하게

표 1. 자기분화 척도에서 사용된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

성격특성 형용사				
고집이 세다(1)	경쟁적이다(2)	게으르다(3)	냉정하다(4)	다정하다(5)
변덕스럽다(6)	보수적이다(7)	상냥하다(8)	성급하다(9)	유머가 있다(10)
책임감이 있다(11)	쾌활하다(12)	편안하다(13)	예의바르다(14)	지적이다(15)
이기적이다(16)	소심하다(17)	솔직하다(18)	이해심이 많다(19)	수줍어 한다(20)
단순하다(21)	독선적이다(22)	활동적이다(23)	인내심이 있다(24)	경솔하다(25)
체계적이다(26)	진지하다(27)	성실하다(28)	자신감이 있다(29)	말이 적다(30)
우유부단하다(31)	반항적이다(32)	느긋하다(33)		

표 2. 자기 성격특성 분류의 예

자신을 표현하는 상황 이나 모습의 측면들	혼자 있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아들로서의 역할	나의 장점
성격특성 형용사의 분류	3(6), 6(2), 33(5)	15(5), 26(4), 27(6), 28(4)	1(6), 3(4), 6(3), 13(6), 30(5), 32(6)	11(6), 14(5), 15(5), 19(6), 27(3), 28(4)

( )안의 숫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모습을 기술해주는 정도

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된 자신의 각각의 상황이나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성격을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이용하여 각 형용사에 해당하는 카드의 번호를 기록용지에 적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성격 형용사가 자신의 상황이나 모습을 기술해 주는 정도를 번호 뒤의 괄호 안에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33개의 형용사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형용사를 각기 다른 자기의 여러 측면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시를 하였다.

한 피험자의 반응의 예를 들면 표 2와 같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성격분류 기법에 의한 각 피험자의 반응기록을 토대로 Linville이 사용한 Scott의 H통계치를 이용하여 Scott의 자기분화 점수를 구하였다.

$$SC(H) = \log_2 n - (\sum \log_2 n_i) / n^{11}$$

자기분화 척도에 제시된 33개의 형용사가 자신의 역할을 기술하는 정도를 평정한 측정치에 대하여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하위 요인을 추출한 다음 각 요인 내에서의 분화정도인 차원내 분화값과 각 요인간에서의 분화정도인 차원간 분화값을 산출하였다.

차원내 분화값과 차원간 분화값을 산출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기분화 척도에서 사용한 33개의 형용사에 대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절차에 따른 직교회전을 통해 eigen value가 1보다 큰 요인을 추출하였다(부록 1 참조). 각 요인의 부하 값에 의하면 33개의 성격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독립적 요소

1). H 공식에서 n은 성격특성 형용사의 총 개수(여기서는 33개)이며, ni는 특정 집단조합에 나타난 형용사의 수, 즉  $n = \sum ni$ 이다. 여기서 집단조합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집단 1과 집단 2에 속하지만 다른 집단에 속하지 않는 형용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형용사는 집단조합 1-2에 속하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만약 한 개인이 2개의 형용사 집단을 구성했다면 1개의 특정 형용사는 4가지 가능한 집단조합들 중(집단 1, 집단 2, 집단 1-2, 앞의 세 가지 집단에 속하지 않은 조합) 하나의 집단조합에 포함될 것이다.

이 예에서 위 공식의 ni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자기개념 분화의 개별 측정치를 구한다.

n1=집단 1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2=집단 2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3=집단 1과 집단 2에 동시에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4=위의 3가지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I : 다정하다, 상냥하다, 유머가 있다, 쾌활하다, 편안하다, 솔직하다, 이해심이 많다.

요인 II : 책임감이 있다, 지적이다, 인내심이 있다. 체계적이다, 진지하다, 성실하다.

요인 III :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반항적이다.

요인 IV : 예의바르다, 소심하다, 수줍어한다, 말이 적다.

요인 V : 변덕스럽다, 경솔하다, 우유부단하다.

요인 VI : 경쟁적이다, 성급하다, 활동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요인 VII : 게으르다, 단순하다, 느긋하다.

요인 VIII : 냉정하다, 보수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먼저 차원내 분화값을 구하기 위하여 상기한 8개 요인 중에 요인 1에 해당하는 형용사만을 가지고 자기의 여러 측면을 분류한 결과를 Scott 등 (1979)의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으며, 요인 2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요인 1부터 요인 8까지의 H통계치 값을 구하여서 이 값들의 평균을 차원내 분화값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요인 1에 해당하는 형용사인 다정하다, 상냥하다, 유머가 있다, 쾌활하다, 편안하다, 솔직하다, 이해심 많다 등의 7개 형용사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들' 혹은 '나의 장점' 등의 여러 가지 자기 측면들에 분류된 정도의 H 통계치를 구하고 나머지 7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하여 총 8개 값의 평균이 차원내 분화값이 되었다.

차원간 분화값의 산출은 8개 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이에 대한 Scott의 H 통계치를 구

하고 이를 차원간 분화값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요인 1에 해당하는 다정하다, 상냥하다 등의 7개 형용사는 모두 1집단으로 묶고 요인 2에 해당하는 책임감이 있다, 지적이다 등의 6개 형용사는 모두 2집단으로 묶는 등 8개의 요인 모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묶어서 8개 각각의 집단들이 자기의 여러 측면에 분류된 결과에 대하여 H 통계치를 산출하여 차원간 분화값의 지표로 삼았다.

### 3) 절 차

자기분화 질문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분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 장의 카드에 한가지 성격 특성 형용사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가 적혀있는 총 33장의 카드와 10장의 백지카드 그리고 16칸으로 된 2장의 기록 용지를 피험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당신 자신의 역할이나 모습을 생각할 때 함께 있다고 여겨지는 형용사들의 집단을 만들어 해당 번호를 기록 용지에 적고 맨 윗칸에 역할이나 모습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형용사들이 자신을 기술하는 정도를 1-7 중의 숫자로 기록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많은 집단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형용사가 여러 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는 백지 카드에 해당 형용사를 적고 집단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 결 과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내 분화 및 차원간 분화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계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Scott의 자기분화, 차원내 분화 및 차원간 분화의 상관

	Scott의 분화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Scott의 분화		.52*	-.08
차원내 분화			.01
차원간 분화			
평균	3.28	1.69	2.02
표준편차	0.78	0.43	0.54

\*  $p < .001$ 

표 3을 보면,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내 분화가 높은 상관( $r=.52$ )을 보인 반면에,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간 분화는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r=-.08$ ).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상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r=.01$ ).

를 수강하는 학생 298명을 피험자로 하였으며 이들중 두 번에 걸친 설문예 모두 참가하지 않거나 1가지 이상의 질문지에 누락한 37명을 제외하고 261명(남학생 ; 152명, 여학생 ; 10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 2. 연구 1 : 시험상황에서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중간고사 사이에 두고 중간고사 전에는 중간고사에서의 기대 성적, BDI 및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으며 중간고사 후에는 실제 성적, 자기분화 척도, BDI 및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차원내 분화는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대하지 않으나 차원간 분화는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대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방 법

### 1) 피험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정신위생 강의

## 2) 도 구

### (1)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BDI는 Beck과 그의 동료들(Beck, 1967; Beck 등, 1961)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BDI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는데, Beck 등(1961)은 우울증 측정표와 BDI의 양분상관계수 .65와 .67을, Bumberry, Obiver 및 McClure(1978)는 정신과 전문의의 조직적 면담결과와 BDI와의 적률상관계수 .62를 제시했고, Williams, Barlow 및 Agras(1972)는 BDI와 Hamilton(1960)의 우울증 평정척도간의 적률상관계수를 .82로 보고하고 있어 BDI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이며 반분 신

되도는 .91이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증상, 정서적 증상, 동기적 증상, 자존심 저하 및 신체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다.

(2) 자기평가 척도(Self-evaluation Scale)

자기평가 척도는 Alike(1985)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성격특성 형용사와 부정적인 성격특성 형용사를 제시하고 각각의 형용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평균인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를 표시하게 해서 자기평가 정도를 측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김영채(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 400개 중 심상가가 3.0 이상이며 동시에 호오가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형용사 각각 15개씩 총 30개를 추출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자기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형용사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의 7점 척도 중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여 자기지각의 합계 점수를 구하였으며, 보통사람에 대해서도 7점 척도로 표시하게 해서 평균인 지각의 합계 점수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지각의 합계 점수에서 평균인 지각의 합계 점수를 빼서 자기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척도를 대학생 78명에게 실시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다.

(3) 자기분화 척도 ; 예비연구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4)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Mood Adjective Checklist ; MACL)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는 현재의 우울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21개

의 형용사와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11개의 형용사 등 총 32개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체크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이영호(1993)는 국어사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뽑아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우울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정시켜 예비적으로 그 다음 96단어를 선택하였다. 96개의 형용사를 우울증 환자 38명과 정상인 51명에게 체크하도록 하여, 두 집단을 잘 변별하는 형용사를 골라내었다. 그리하여 32문항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들의 점수는 체크된 우울형용사 수에 체크되지 않은 긍정적 형용사 수를 더하여 산출한다. 일반인 148명과 149명에게 각각 A형과 B형을 실시하여 얻은 평균은 14.36(표준편차 5.84), 13.93(표준편차 6.05)이고  $\alpha$  계수=.85, .86, 반분신뢰도계수는 .85, .91을 보였다. BDI와 상관은 .52, .68이었고, 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S;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와 상관은 .49, .57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A형은 긍정형용사 요인이 주요한 요인으로 변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반면, B형은 우울형용사 요인이 변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B형이다.

(5) 자기편향 척도(Self-bias Scale)

3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였는데, 시점 1에서는 중간고사에서의 기대 성적을 기록하게 하고 시점 2에서는 실제 받은 성적을 기록하게 해서 실제 받은 성적과 기대 성적간의 편차(실제성적-기대성적)를 자기편향 정도로 보았다.

3) 절 차

질문지들은 중간고사 기간을 사이에 두고 3

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 과

시점 1 : 중간고사를 실시하기 5일 전에 “이번 시험 결과 평점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질문했으며, BDI와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의 2가지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시점 2 :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난 10일 후에 “이번 시험에서 실제 받은 평점은 얼마인가?”를 질문했으며, BDI,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척도, 자기분화 척도 등의 4가지 질문지를 실시했다.

4) 분석

차원내 분화수준이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받은 성적과 기대 성적간의 편차를 자기편향 정도로 보고, 우울 형용사 체크리스트의 사후 우울수준(이하 MACL②라 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울 형용사 체크리스트의 사전 우울수준(이하 MACL①이라 함)과 실제성적, 자기편향 점수, 자기평가 점수, 차원내 분화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 차원내 분화를 순서적으로 투입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에서는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상호작용과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변인들을 투입하기 전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먼저 투입하였다. 즉, 사전우울 수준인 MACL①을 가장 먼저 회귀식에 투입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편향 점수와 실제성적(평점)을 투입하였다. 기대성적과 실제점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자기편향뿐만 아니라 실제성적의 효과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변인들이 다 투입된 다음 자기평가 점수와 차원내 분화(또는 차원간 분화) 점수가 투입되며, 이 두 변인이 투입된 후 마지막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두 변인의 곱(Cross product)이 투입되었다.

1)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사후 우울수준인 MACL②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표 4. 자기평가, 차원내 분화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 계	예언변인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t	p
1	MACL①	.40	.40	124.10		.001
	실제성적, 자기편향	.41	.01	.48		
2	실제성적				-.06	.87
	자기편향				.10	.79
3	자기평가, 차원내분화	.51	.10	21.79		.20
	자기평가				.48	.50
4	차원내 분화				2.21	.04
	자기평가×차원내분화	.53	.02	.71	.24	.61

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차원내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는 유의미했으나( $t=2.21, df=1/259, p < .05$ ), 자기평가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48, df=1/259$ ),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없었다. ( $t=.24, df=1/259$ ). 즉,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상호작용은 사전 우울 수준, 기대성적과 실제 성적의 편차(자기편향), 실제성적, 자기평가, 차원내 분화의 모든 예언변인의 효과를 제외시키면 사후 우울수준의 전체 변량의 약 2% 정도를 추가로 설명해 주었다.

이 결과는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의 상호작용이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차원내 분화가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대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으로, 차원내 분화는 자기평가와 우울을 증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하였다.

2)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사후 우울수준인 MACL②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자기평가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72, df=1/259$ ), 차원간 분화의 효과( $t=-3.38, df=1/259, p < .01$ )는 유의미하였으며,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있었다( $t=1.97, df=1/259, p < .05$ ).

즉,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은 사전 우울수준, 기대성적과 실제 성적의 편차(자기편향), 실제성적, 자기평가, 차원간 분화의 모든 예언변인의 효과를 제외시킨 후에도 사후 우울수준의 전체 변량의 약 7% 정도를 추가로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원간 분화가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증대함을 보이는 것으로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연구 II :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II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의 관계를 두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차원내 분화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차원간 분화는 우울과 부

표 5. 자기평가,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 계	예언변인	$R^2$	$R^2$ Change	F	t	p
1	MACL①	.35	.35	107.18		.001
	실제성적, 자기편향	.36	.01	.25		
2	실제성적				-.04	.96
	자기편향				.07	.88
	자기평가, 차원간분화	.54	.19	36.27		.03
3	자기평가				.72	.47
	차원간분화				-3.38	.01
4	자기평가×차원간분화	.61	.07	17.16	1.97	.05

적인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아 분화의 두 차원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둘째,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4) 분석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와 우울과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원내 분화(2) × 차원간 분화(2)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결 과

1) 피험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정신위생 교양강의를 수강하는 1 - 4학년 학생 332명을 피험자로 하였으며 이들 중 1개 이상의 설문지에서 누락된 1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6명(남학생; 195명, 여학생; 12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도구

Beck의 우울 척도,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 및 자기분화 척도 : 연구 I 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3) 절차

먼저 자기분화 척도를 실시한 후에 Beck의 우울 척도와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1)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의 관계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계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결과는 BDI와 차원내 분화( $r=.16$ )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BDI와 차원간 분화는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r=-.26$ )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차원내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느끼고, 차원간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결과로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해 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느끼나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표 6.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및 우울의 상관

	내분화	간분화	BDI	MACL
내분화		.03	.16*	.17*
간분화			-.26**	-.29**
BDI				.65**
MACL				
평균	1.65	2.05	10.16	15.94
표준편차	0.46	0.57	6.69	8.97

\*  $p < .01$  \*\*  $p < .001$

표 7.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른 우울의 평균

	차원간 분화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차원내 분화 낮은 집단	11.18(3.05)	8.60(2.43)
차원내 분화 높은 집단	14.22(3.21)	8.32(2.50)

( )안은 표준편차

표 8.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른 우울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차원내분화(A)	59.34	1	59.34	1.46
차원간분화(B)	339.66	1	339.66	8.36**
A×B	191.31	1	191.31	4.71*
오차	12680.93	312	40.64	
전체 변량	13271.24	315	42.13	

\*  $p < .05$  \*\*  $p < .001$

2)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원내 분화(2) × 차원간 분화(2)의 2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평균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을 보면, 차원내 분화의 주효과는 의미가 없었으나[F(1, 312)=1.46], 차원간 분화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 312)=8.36,  $p < .001$ ],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있어서[F(1, 312)=4.71,  $p < .05$ ]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없으나, 차원간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M=8.32)과 낮은 사람

(M=8.60)이 우울에서 차이가 없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M=14.22)이 낮은 사람 (M=11.18)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개념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기능론과 구조론적 입장 각각을 개관하였고 나아가 각각의 입장에서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자기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적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적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 구조론적 입장에서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주장과 이

와는 반대로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Emmons & King, 1989; Judd & Lusk, 1984)에서 시사점을 얻어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라는 분화의 두 가지 차원을 추출하였다. 이로부터 첫째, 분화의 두 가지 차원은 상호 배타적이며 둘째, 분화의 두 가지 차원이 자기평가와 우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중재하는지 셋째, 분화의 두 가지 차원과 우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해진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가 갖는 함축적 의미와 시사점을 검토한 다음, 상담장면에 적용되거나 고려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화의 두 가지 차원이 자기평가와 우울을 중재하는지를 검증하여 자기개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능론적 입장이 갖는 제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둘째, 분화의 두 가지 차원과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기분화와 우울간의 관계를 설명한 구조론적 입장이 갖는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예비연구와 관련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 연구에서는 먼저 자기분화 척도에 사용할 성격특성 형용사를 구한 다음, 대학생 집단에서 자기분화 척도에 제시된 33개 성격특성 형용사가 피험자 자신의 여러 측면을 기술하는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내 분화 및 차원간 분화값을 산출하고 이 세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내

분화간에는 상관이 높아 서로 유사한 변인인 반면에, Scott의 자기분화와 차원간 분화간에는 상관이 없어서 서로 다른 변인이었다. 둘째,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는 상관이 없어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예비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가 서로 별개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 분화인 Scott의 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로 분리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즉 자기개념의 구조적 속성인 자기분화를 동질적인 자기상으로 다양한 정도인 차원내 분화와 이질적인 자기상으로 다양한 정도인 차원간 분화로 나누어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Linville(1987)이나 Thoits(1983) 등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동질적인 자기상으로 다양한 사람은 하나의 자기상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그와 유사한 자기상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을 많이 경험하나, 이질적인 자기상이 다양한 사람은 하나의 자기상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와는 특성이 다른 나머지 자기상들이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 동질적으로 다양한 자기상을 가진 사람과 이질적으로 다양한 자기상을 가진 사람을 나누어서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 I에서는 시험상황에서 중간고사를 사이에 두고 우울을 2번 측정하여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하고 분화의 두 수준이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중재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와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만날 때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울을 많이 느

긴다는 연구들(Lewinsohn 등, 1980; Silverman, 1964)과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연구들(Bem, 1975; Burke 등, 1977; Sande 등, 1988)이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연구 I은 이를 실생활 장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라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나,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가 달라질 것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와 차원내 분화수준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의미가 없었으나, 사전 우울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자기평가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의미가 있었다. 즉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평가의 수준에 관계없이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많이 느낀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중립적으로 볼 때 우울을 적게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때 우울을 적게 느꼈다.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 할 때가 중립적으로 평가할 때보다 우울을 적게 느껴서, 자기에 대해 긍정적 착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Alike, 1985; Brown, 1986)과 일치했으나,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평가가 중립적일 때가 극단적으로 긍정적일 때보다 우울을 적게 느껴 정확하고 중립적인 자기 지각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결과들(Haan, 1977; Jourard & Landsman, 1980)과 일치했다. 그러면 중립적이거나 극단적인 자기평가가 왜 어느 경우에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어느 경우에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는 Linville(1987)의 주장대로 자기개념이 이질적인 상으로 분화된 사람은 평균효과가 일어나서 감정이 중립적으로 되어 우울을 적게 느끼나,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동질적인 자기상

의 누가적 효과가 일어나서 감정이 극단적으로 되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우울에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차원간 분화의 효과를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I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능론적 입장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 즉, 자기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주장들(Lewinsohn 등, 1980; Silverman, 1964)과 자기를 중립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주장들(Jahoda, 1958; Jourard 등 1980; Vaillant, 1977)이 갖는 모순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개념과 우울을 설명하는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차원간 분화수준이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연구 II는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아서 구조론적 입장의 상반된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화의 두 차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Block(1961)과 Donahue, Robins, Roberts 그리고 John(1993) 및 김완일과 김재환(1992)의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만 Linville(1987)이나 Thoits(1983)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차원내 분화가 높다는 것은 하나의 자기상에 대해 상관 관계가 높은 형용사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동질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inville(1987)의 주장대로



이질적인 다양한 차원이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차원내 분화가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자기상을 가진다는 뜻인데 이는 자신에 대해 몰두하고 사적이고 은밀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연구들(Fenigstein 등, 1975; Gibbon 등, 1985; Jacobson & Anderson, 1982)에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알게되어 자기상이 분화된 사람과 유사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여러 가지 측면이 동질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자기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그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자기상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Linville(1987)이 자기복잡성의 스트레스 대처 가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하나의 자기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줄 이질적인 다양한 자기상이 있어서 우울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로 관련된 자기상이 다양한 사람(예: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동질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부인)은 이혼상황에서 아내와 어머니 및 며느리로서의 자기상이 모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할 것이나, 서로 관계없는 자기상이 다양한 사람(예: 아내, 변호사, 테니스 선수라는 이질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상황에서 “나는 훌륭한 아내는 못되지만 훌륭한 테니스 선수다”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기상이 아내라는 자기상

이 받는 영향을 완충시켜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여 우울을 적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분화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들(Linville, 1987; Thoits, 1983)과 자기분화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들(Block, 1961; Chartier & Conway, 1984; Donahue 등, 1993)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왔는데 Scott의 자기분화를 차원간 분화와 차원내 분화로 나누어서 차원간 분화는 우울을 감소시키나 차원내 분화는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봄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분화의 두 차원과 우울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차원간 분화와 차원내 분화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에서 차이가 없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가 높을 때가 낮을 때 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차원내 분화수준의 영향을 받으나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차원내 분화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이미 다양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자기상의 다양성 정도인 차원내 분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기상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차원내 분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상담이나 치료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질적인 다양한 자기상으로 보도록 하여 차원간 분화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제 본 연구결과가 자기개념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영역에 제공하는 이론적 시

사점과 상담장면에 갖는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기분화값을 Scott의 H통계치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기분화를 동질적인 자기상으로 다양하게 분화된 정도인 차원내 분화와 이질적인 자기상으로 다양하게 분화된 정도인 차원간 분화로 구분하였으며,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는 상관이 없어서 전혀 다른 속성임을 밝혔다.

둘째, 자기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과 자기를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 중 어느 쪽이 우울을 적게 느끼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와 우울의 관계를 차원간 분화가 중재함을 보여 이러한 논쟁을 설명하였다. 즉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기를 중립적으로 볼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볼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을 밝혔다.

셋째, 자기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로 구분하여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을 보여, 자기개념이 분화된 사람과 분화되지 않은 사람 중 어느 쪽이 우울을 많이 느끼는가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기한 결과를 상담이나 심리 치료 장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울한 사람의 상담에서 우울한 사람이 자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록 하며 다양한 자기상을 갖게 하되 동질적인 차원이 아닌 이질적인 차원으로 구성된 자기상을 다양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울증환자의 경우는 동질적인 자기상도 다양하지 못하는데 이질적으로 다양한 자기상을 갖게 하는 것이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분화는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었으

므로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개념을 다양하게 갖게 하되 긍정적인 자기상을 다양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고찰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측정의 문제로 본 연구는 대부분이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자기분화 등을 측정할 때 실제 상황에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BDI 등 대부분의 척도가 자기보고식이었는데 이러한 척도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이기는 하지만 피험자의 반응 태세나 사회적 선호도 등에 의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피험자가 요구되어서 자기보고 이외의 측정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둘째,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를 측정할 때 자기상을 개인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만 알아보았는데 자기상의 측면을 넓혀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분화의 정도를 알아보는 추후연구를 실시하여 자기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cott의 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로 나누어서 자기상의 다양성과 자기상들간의 관련성과 같은 자기개념의 수평성만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최근에 자기개념을 수평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중요도의 측면에서 수직성의 차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Baumgardner, 1990)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분화를 측정할 때 자기모습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수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요도의 관점에서 의 수직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었으면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처치가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우울과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자기평가, 자기분화 정도는 한 개인에게 있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온 자기개념으로 조작이 어려웠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 연구를 하거나 단기 종단적 연구를 함으로써 자기개념과 우울과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었으면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인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자기분화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 도구화해서 상담하거나 치료하기 전에 우울한 사람을 알아내는데 활용하며, 우울한 사람들의 상담이나 치료 후에 우울의 회복이나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김영채 (1984). 400개 성격특성 형용사의 심상가와 호오가. *계명대학교 : 사회과학논총*, 2권, 17-32.
- 김완일, 김재환 (1992). 대학생의 자기긍정감, 자기복잡성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 대학생활연구*, 10권, 249-270.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10권 1호, 98-113.
- 이정균, 광여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욱, 이영호(1985). 한국 정신 장애의 역학적 조사 연구 - 도시 및 시골 지역의 평생 유병율. *대한의학협회지*, 28권 12호, 1223-1244.
- Ali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E., & Erbaugh, J. K.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lock, J. (1961). Ego identity, role variabi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392-397.
- Brokner, J. (1984). Low self-esteem and behavioral plasticity : Some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37-271, Beverly Hills, CA : Sage.
- Brockner, J. (1988). *Self-esteem at work*

-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J. D., & Smart, S. A. (1989). *Role of self-concept certainly in buffering the adverse impact of stressful life ev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attle.
- Bumberry, W., Obiver, J. M., & McClure, J. N. (1978). Validat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a University population using psychiatric estimate as a criter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50-155.
- Burke, P. J. & Tully, J. C. (1977). The measurement of role-identity. *Social Forces, 55*, 881-897.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hartier, B. M., & Conway, J. B. (1984, August). *Psychometric comparison of the Leary and Wiggins Interpersonal Scal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Elliott, G. C. (1984). Self-esteem and self-consisten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49*, 207-218.
- Emmons, R. A., & King, L. A. (1989). Personal striving differentiation and affective re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78-484.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8.
- Friedman, R. J. (1974).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An overview. In R. G. Friedman & M.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pp.281-298). Washington, D. C. : V. H. Winston.
- Gibbon, F. X., Smith, T. W., Ingram, R. E., Peace, K., Brehm, S. S., & Schroeder, D. J. (1985). Self-awareness and self-confrontation : Effects of self-focus attention on members of a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62-675.
- Goolbsy, L. (1988). *Identities, traits, and the self-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Auburn University.

- Haan, N. (1977). *Coping and depe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Hamilton, M. (1960). A rating scale for depressio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23, 56-62.
- Higgins, E. T. (1983). *A theory of discrepant self-concepts*. New York University Unpublished.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Jacobson, N. S., & Anderson, E. A. (1982). Interpersonal skill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 An analysis of the timing of self-disclosures. *Behavior Therapy*, 13, 271-282.
- Ja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 Basic Books.
- Jourard, S. M., Landsman, T. (1980). *Healthy personality :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4th ed.)*. New York : Macmillan.
- Judd, C. M., & Lusk, C. M. (1984). Knowledge structure and evaluative judgements : Effect of structural variables on judgemental extre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193-1207.
- Kuiper, N. A., & Derry, P. A. (1982).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self-reference in mil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50, 67-79.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 Ronald Press.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 212.
- Linville, P. W. (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Paulhus, D. S., & Martin, C. L. (1988). Functional Flexibility: A new Conception of interpersonal flexibility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101.
- Robins, L. N., Helzer, J. E., Weissman, M., Orvaschel, H., Gruenberg, E., Burke, J. D., & Regier, D. A. (1984). Lifetime prevalence of specific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three si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949-958.
- Sande, G. N., Goethals, G. R., & Radloff, C. E. (1988). Perceiving one's own traits

- and others': The multifaceted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3-20.
- Scott, W. A., Osgood, D. W., & Peterson, C. (1979). *Cognitive structure : Theory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Washington, D. C. : V. H. Winston & Sons.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Freeman.
- Silverman, I. (1964). Self-esteem and differential responsivenes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115-119.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ryker, S. (1987). Stability and change in self : A structural symbolic interactionist explan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44-55.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 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etlock, P. E. (1989). Structure and function in political belief systems. In A. R. Pratkanes, S. J. Breckler, & A. G. Greenwald(Eds.), *Attitudes structure and function* (pp. 129-151). Hillsdale, NJ : Erlbaum.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Turner, R. H. (1978). The role and the per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ical Review*, 84, 1-23.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 Little, Brown.
- Williams, J. G., Barlow, D. H., & Agras, W. S. (1972). Behavioral measurement of severe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7, 330-333.

## The Effects of Self-Evalu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n Depression

Wan-Il Kim

Korea Military Academy

Jae-Whan Kim

Hanyang University

There are two positions in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depression: functionalist perspective and structuralist perspective. Functionalist perspective includes two contrasting interpretations. The first interpretation is that the more extremely a person evaluates himself/herself extremely (too positively), the lower degree of his or her experiencing depression becomes.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that the more neutrally a person evaluates himself/herself, the lower degree of his or her experiencing depression becomes. Like the functionalist perspective, there are two contrasting interpretations. The first interpretation is that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of the self-concept becomes, the low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becomes.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that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of the self-concept becomes, the high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become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itfalls of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depression by introducing "self-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and "self-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First, in order to prove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of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the first hypothesis was developed: in case a person's self-concept is extreme, the lower the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the lower degree of depression is; in case a person's self-concept is neutral,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the lower the degree of depression is

Also, in order to prove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of structuralist perspective, second hypothesis were developed: (1)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is, the high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is. (2)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the low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1 included two sub-research. In the pilot study, the researcher draw introduced value of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and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and further tried to measur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Scott's Self 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and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since the problem of Scott's self-differentiation scale was not to consider the above two concepts. Sub-research 1 was to examine whether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and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in the subjects of college students when the level of prior depression was controlled. As a result, the first hypothesis was confirmed.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was a critical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However,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Second, Research 2 was fir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and depression, and second to examine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and self-integration. As a result, the second hypothesis was confirmed.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However,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These results have many implications not only for further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depression but also for practical utilities, e. g. counselling psychology.



부록 1. 주성분 요인분석과 varimax절차에 따른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고집이 세다	-.03480	-.02096	<b>.61419</b>	-.07424	.09186	.19939	-.10693	.12860
경쟁적이다.	-.16558	.14128	.20953	-.00739	-.01004	<b>.54770</b>	-.03072	.25285
케으르다	-.07033	.04206	.31140	-.00974	.24574	-.06628	<b>.44237</b>	-.34636
냉정하다	-.09382	.09032	.25781	.05483	-.10749	.13690	.02704	<b>.64792</b>
다정하다	<b>.76191</b>	.08576	-.03831	.07595	.03800	-.07949	-.11172	-.00161
변덕스럽다	.09325	-.10084	.22747	-.11648	<b>.56044</b>	-.11631	.07348	.01601
보수적이다	.10799	.09686	.03230	.08162	.27110	-.04991	-.21157	<b>.53625</b>
상냥하다	<b>.66889</b>	.07924	-.08234	.26189	-.06078	-.08442	-.17227	-.06022
성급하다	-.11251	.00901	.08548	.00817	.44530	<b>.46456</b>	-.11878	.00724
유머가 있다	<b>.62846</b>	-.08004	.05008	-.08274	.01453	.21463	.02728	-.01589
책임감이 있다	.16088	<b>.68573</b>	.04334	-.00182	.00357	.07151	-.15736	-.10290
쾌활하다	<b>.63698</b>	-.09951	-.04547	-.06169	-.06331	.31486	.03635	-.10961
편안하다	<b>.65812</b>	.02160	-.04834	-.10284	-.05965	.00857	.20709	.03821
예의바르다	.28361	.24709	.03822	<b>.57991</b>	-.16550	-.02381	-.11699	-.19277
지적이다	.19804	<b>.29257</b>	.07267	.14433	-.09125	.05825	.02995	.14585
이기적이다	-.03043	-.04394	<b>.64769</b>	-.01030	.17328	.04832	.00442	.12260
소심하다	-.11801	-.01390	-.05847	<b>.52144</b>	.40036	-.00015	.03363	.05703
솔직하다	<b>.56739</b>	.16712	.05083	.03608	.05660	.00054	.06070	-.02445
이해심이 많다	<b>.62879</b>	.23026	-.09881	-.04465	.06606	-.09560	-.04093	.20074
수줍어한다	.03091	-.04572	-.11347	<b>.74705</b>	.07411	.01790	-.05119	.01396
단순하다	-.02824	-.08101	-.09152	.10346	.18491	.22364	<b>.52651</b>	.03737
독선적이다	.00992	.03765	<b>.63006</b>	-.06896	.08599	-.07395	.04307	.07308
활동적이다	.32505	.07050	-.04283	-.10719	-.07012	<b>.59725</b>	.03078	-.07895
인내심이 있다	.10885	<b>.48961</b>	-.02852	.00511	-.07000	-.02790	.22076	.27527
경솔하다	-.02279	-.05955	.25561	-.01492	<b>.45698</b>	.11551	-.01954	-.03212
체계적이다	-.15703	<b>.58751</b>	-.02207	-.12347	.00232	.15031	.04098	.03166
진지하다	.03510	<b>.55245</b>	-.12368	.02685	-.01185	.01257	.03146	.19632
성실하다	.11647	<b>.68815</b>	-.01095	.04672	-.04802	.06358	-.07989	-.13462
자신감이 있다	.16947	.31623	.03011	-.00142	-.08759	<b>.51233</b>	.14631	.00641
말이 적다	-.11675	-.06871	.07801	<b>.63740</b>	-.14238	-.14294	.14365	.28060
우유부단하다	.01971	-.01098	-.08336	.09154	<b>.68359</b>	-.09016	.12635	.01925
반항적이다	-.04140	-.06046	<b>.67424</b>	.07305	-.07369	.01521	.01719	-.09568
느긋하다	.08275	.05504	.00190	-.07538	-.05515	-.08727	<b>.74084</b>	-.07318
eigen value	3.83	2.37	2.17	1.93	1.47	1.29	1.19	1.06
변 량 (%)	11.6	7.5	6.6	5.9	4.5	3.9	3.6	3.2
변량 전체	46.7							